

사 램 사 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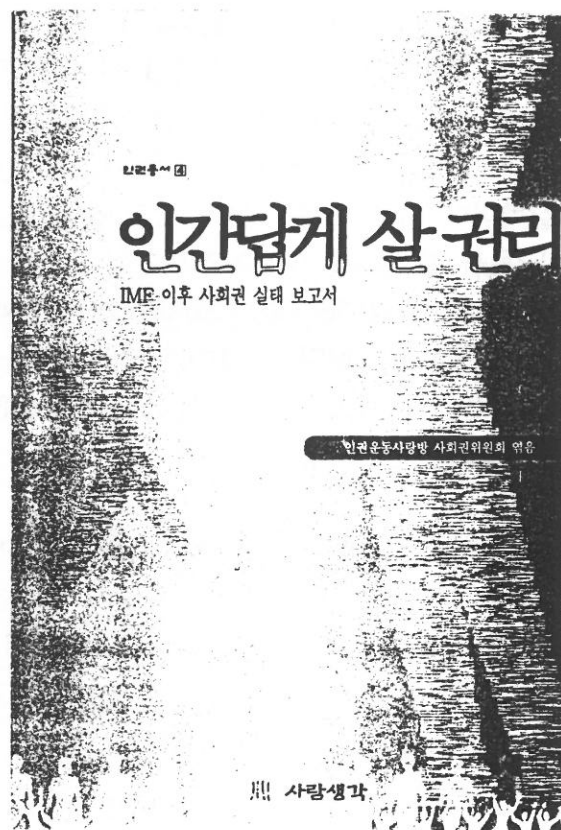
회원통신 제61호(2000/1/22)

인 권 운 동 사 랑 방 「SARANGBANG」 Group for Human Rights, Korea

(110-522) 서울 종로구 명륜2가 8-29 4층

대표전화: 741-5363, 팩스: 741-5364 통신ID: rights(천리안, 하이텔) 인권사랑(나우누리)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인터넷 웹사이트; <http://www.sarangbang.or.kr>



“손에 잡히는 사회권!”

인권운동사랑방 사회권위원회는 지난 1년간 활동의 결실을 한 권의 책으로 엮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인권문제를 사회권의 시각으로 조망한 국내 첫 시도이기도 합니다.

빈곤, 사회보장, 여성, 장애인, 이주노동자, 노동, 건강, 교육, 주거, 문화, 환경, 과학기술 등 서로 다른 분야를 사회적 약자의 시각에서 한 줄로 꿰고 있습니다.

· 구입 문의 : 이주영(02-741-5363) 도서출판 사람생각(02-3675-4096)

· 가격 : 1만5천원

캘커타에서 보낸 한달

최은아(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연대’란 인류의 고통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가질 뿐 아니라
그 고통을 자기 것으로 여기고 고통받는 이들의 편에 서는 것이다**

캘커타에서는 숨 쉬기가 쉽지 않다. 아직도 석탄이나 나무를 주 연료로 사용하고 디젤을 이용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기 때문이다. 그만큼 공기가 나쁘다. 캘커타에서 하루 흡입하는 공기는 서울에서 담배 한 갑을 피우는 것만큼 폐에 해롭다. 그러나 캘커타에서 숨쉬는 것보다 힘든 일이 있다. 그건 바로 내가 일찍이 보지 못했던 ‘가난’을 견디는 일이다. 마더 테레사 하우스로 가는 길목마다 천으로 몸을 둘둘 말고 잠을 청하는 노숙자들. 천 밖으로 빠져 나온 그들의 검은 발목을 볼 때 내 가슴속에 연민이 스민다. 캘커타에만 있는 맨발의 릭사왈라들은 100% 스모그 때문에 안개가 낀 그래서 다소 낭만적이기까지 한 그 새벽 거리에서 벨을 울리며 손님을 유혹하곤 한다. 거리마다 쓰레기더미를 헤집고 다니는 아이들, 개들, 까마귀 때들이 한데 뒤엉키는 풍경에 ‘이국적’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사치스럽기까지 하다. 나는 그냥 너무 화가 났다.

캘커타로 출발하기 전, 내겐 질문 하나가 있었다. 사랑의 선교회(Mission of Charity)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 시설 혹은 빈민구호 사업이 도대체 인도라는 불평등한 사회구조에 대한 고민 없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다만 불평등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뿐이다. 도대체 그런 구호시설들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해 먼저 그곳을 여행하고 돌아본 사람은 그저 “네가 가서 보라”는 선문답 같은 말만을 던져 주었다. 그래서 나는 내게 주어진 휴식기간 중의 일부를 캘커타에서 보냈다.

질문 하나와 프렘단의 자원봉사

그곳에서 내가 한 일은 오전 8시부터 12시까지 프렘단(사랑의 선물이라는 뜻. 거리의 행려병자나 돈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살피는 곳. 일종의 양로원 역할도 함)이라는 곳에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 나눠주고 치료를 도와주는 일이다. 백여 개의 철제침대를 한곳으로 몰아넣고 바닥에 뒹구는 온갖 오물(배설물, 음식찌꺼기)을 쓸어낸다. 물을 뿌리고 비누 가루로 바닥을 닦은 후 다시 물로 쓸어 낸다. 나중에는 물기를 없애기 위해 자원봉사자들이 1m 간격으로 줄을 선후 큰 걸레로 바닥을 닦아 낸다. 자원봉사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앞치마와 50cm가량의 싸리비, 커다란 걸레뿐. 청소할 때마다, 나는 허리와 무릎을 굽히고 때론 거의 주저앉을 것 같은 자세로 일을 했다. 그래서 근육통으로 내 몸 어느 곳도 아프지 않은 곳이 없었다. 만약 이러한 일들을 서울에서 했다면, 청소는 진공청

소기가, 빨래는 세탁기가 했을 것이다. 하다못해 대걸레를 이용해서 바닥을 닦았을 것이며 빨래를 비빌 수 있는 빨래판이라도 이용했을 것이다. 즉 인간의 '원초적 노동'이 아닌 '기계의 편리함'에 기대어 일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프랭담은 철저하게 가난한 삶의 원칙이 지켜지는 곳이다. 그래서 인간의 노동이 '헌신'일 수밖에 없다. 물론 그럴 일은 없겠지만, 세계 각지에서 수많은 후원과 기부금이 답지한다고 하더라도 그곳 사람들은 가난하게 사는 일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2주쯤 일하고 나니,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점심때마다 내게 밥을 달라고 꼭 부탁하는 정신장애를 갖고 있는 환자, 파니파니(물)를 외치며 똥 묻은 엉덩이를 내미는 아줌마, 보자기에 든 빨래꾸러미를 양어깨에 매고 4층 옥상까지 오르는 70대 프랑스 출신의 자원봉사자 노엘할머니, 능숙하게 상처 안의 고름과 구더기를 끄집어내는 일본인 도모. 이들과의 관계 맺기가 캘커타에서의 일상을 따뜻하고 재미있게 만들었다.

물론 그곳 수녀님들은 자원봉사자와 인도인 사이에 특별한 관계를 맺지 않도록 당부한다. 어느 한 쪽도 언젠가 고국으로 혹은 죽음으로 이별해야 하기에 그 고통을 감내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인도인이든 세계각지에서 온 자원봉사자든 모두 사람이기에 그런 애매하기 짝이 없는 경계선에서 대개는 허물어지곤 한다. 서로 친구가 되는 일은 너무나 간단하다. 대화를 나눌 만큼 나는 뱅갈어를 인도인은 영어를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눈'으로 보고 듣고, '손'으로 느껴야 한다. 아픈 곳을 쓸어 주고, 손을 잡고 임종을 맞이하며, 환자가 덜 통증을 느끼도록 가능한 한 섬세하게 붕대를 감는다.

왜 인간에게 먹을 것, 잘 곳, 입을 것이 권리인지

지금으로부터 10년쯤, 그러니까 인권운동을 시작하기 전 나는 몇 군데에서 자원봉사를 경험한 적이 있다. 당시 어렸던 탓이었는지 동료들과의 관계는 그리 어렵지 않았는데 정작 자원봉사의 주체인 그들과의 관계 맺기는 많이 어려웠다. '저 사람하고 나는 어느 정도 다른 사람이다'란 생각이 내 의식이든 무의식이든 존재했었고 그 단체의 책임자도 자원봉사를 받는 이들과 주는 이들이 깊이 있게 관계 맺는 것을 꺼려했다. 깊은 관계는 서로에게 상처가 된다는 이유 때문이다. 그런 기억들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의 일부를 담아 놓고 살게끔 만들었나 보다. 그런데 캘커타에서 보낸 한달 동안 '눈'으로 보고 듣고, '손'으로 느끼며 친구가 되는 법을 배운 것 같다.

다시 나의 질문으로 돌아간다. 내가 했던 질문을 만약 다른 누가 내게 한다면 나도 이런 대답을 할 수밖에 없다. "네가 가서 보라"는 선문답. 다만, 지난 한 달간의 경험이 인권운동을 하는 내게 준 지금까지의 결론은 이렇다.

"우리 '인권운동'이 이 사회에서 정말 인권이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가야 하고 그들과 친구가 되어야 한다는 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란 주의 기도가 언제나처럼 똑같이 다가오지는 않았다는 점, 왜 인간에게 먹을 것, 잘 곳, 입을 것이 필요한지, 왜 이 모든 것들이 '기본적'일 수밖에 없는지, 왜 이 모든 것들이 인간에게 '권리'인지"를 나는 비로소 보았다.

≡≡≡≡≡≡≡≡≡≡≡≡≡≡≡≡

사 / 업 / 보 / 고

(1999년 12월 넷째 주부터
2000년 1월 셋째 주까지)

≡≡≡≡≡≡≡≡≡≡≡≡≡≡≡≡

인권교육 워크샵 연다

1월 29-30일, 민간단체 활동가 대상

오랫동안 인권교육의 이론과 방법론,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척해온 인권교육실이 드디어 민간단체 활동가들을 위한 인권교육 워크샵을 개최합니다.

단체들의 인권교육에 대한 관심과 실천의지가 높아지고 있지만, 인권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찾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 워크샵은 이런 현실을 고려하여 교육활동가들에게 인권교육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전문성을 기를 수 있는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워크샵은 1월 29~30일 1박 2일간 안양 전진상복지관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워크샵은 △인권교육의 개념과 특성 △인권교육의 가능성과 성공사례 △인권교육의 기본 커리큘럼 △주제별 인권교육 프로그램 구성 △프로그램 시연 및 상호평가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 워크샵은 단체 활동가들에게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어서 이미 20여명이 신청한 상황입니다.

교육실에서는 이번 워크샵 준비를 계기로 그 동안 인권교육에 대해 고민해 왔던 성과들을 정리하고 민간단체 교육활동가의 훈련 프로그램을 구체화함으로써 교육실의 전문

성을 한 단계 높이게 됩니다.

자유권, '감옥 지침서' 검토 시작

자유권위원회의 감옥모임이 지난 1월 10일 정기 회의를 가졌습니다. 감옥 지침서 제작, 민영교도소 문제 대응, 지역단체와의 연계 등 올해 감옥모임에서 중점을 두고 해야 할 사업에 대한 의견 교환을 가졌습니다. 다음모임은 1월 24일에 있고, 사형제도를 다룬 인권영화 <국가의 살인>을 감상한 뒤 재소자 인권 지침서 중에서 '미결수용과 형사절차' 부분을 토론, 검토합니다.

또한, 국가보안법반대국민연대는 지난 1월 7일 집행위원회를 가졌습니다. 국민연대는 16대 국회 이전까지는 실질적인 활동이 불가능하므로 연대 틀은 유지하고, 16대 국회에서 국가보안법이 논의될 것에 대비하기로 하였으며, 사랑방은 자체적으로 내부 사업을 고민중입니다.

한편, 불심검문 캠페인의 과정에서 98년도 11월 연세대, 서울대, 한양대 학생 5명이 제기한 불심검문, 불법연행 소송(담당 김도형 변호사)에서 원고4명에 대해 300만원 지급 판결이 났습니다.(1월 19일자 <인권하루소식> 참조)

사회권, 조약 해설서·민간보고서 계획

사회권위원회가 1년 동안 작업했던 『인간답게 살 권리-IMF 이후 사회권 실태 보고서』가 드디어 지난해 연말에 드디어 출판되어 서점에 깔렸습니다. 이 보고서는 한국에서는 사회권에 대한 첫 번째 보고서란 점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사회권위원회는 올해를 사회권의 내용을 심화시키고 구체화하기 위한 기간으로 설정

하고, 세 가지 방향의 사업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회권 조약에 대한 해설집이 없는 상황이므로 대중적인 해설책자를 발간하고, 이를 토대로 교육, 홍보하는 일과 사회권조약 2차 민간단체 보고서를 연관 단체들과 공동작업을 하면서 쟁점 사항들에 대해서는 캠페인 등을 전개하여 사회권을 구체적으로 알리는 일, 신자유주의적 국제질서가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WTO 저지 국민행동과 아셈민간단체포럼을 계기로 알려내고, 연대하는 일 등입니다. 이와 함께 사회권에 대한 보다 깊은 이론적 작업을 참여연대와 민변 사회복지위원회와 공동과제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인권영화제 김정아씨 연수 떠나

인권영화제는 지역 상영일정까지 모두 마치고 배급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4회 인권영화제에서 상영했던 <글로벌 빌리지 또는 글로벌 필리지?>를 <지구촌 혹은 약탈촌?>이라는 이름으로 배급하게 되었고 <콜롬비아 치육의 전쟁>은 앰네스티에서 협조를 얻어 소량 배급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4회 영화제 작품 중 모두 7편을 배급하게 되었습니다.(구입문의 : 741-2407)

인권영화제 기획 담당자인 김정아 씨가 2월부터 6월까지 연수를 떠납니다. 영화제와 긴밀히 협조하고 있는 다큐멘터리 전문배급사 First Run Icarus(미국 뉴욕 소재, 이하 이카루스)에서 영화 배급업에 대한 전반적인 과정을 습득하는 연수입니다. 김정아 씨는 또한 뉴욕에 체류하면서 각종 영화제에 참석하고 인권단체 탐방과 유엔 밀레니엄 포럼등 행사에 참가할 계획입니다. 연수 비용은 이카루스에서 50% 이상을 기여하기로 했습니다.

인권교육실, '월레포럼' 등 진행중

지난해 7월 열렸던 '대학생 인권캠프'의 후속모임으로 추진되던 <사랑방 월레포럼>이 본 궤도에 올랐습니다. 월레포럼은 매달 첫째 주 토요일에 모여 시급한 인권현안이나 인권운동이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있는 미개척 분야의 인권의제를 중심으로 고민하고 실천방안을 모색하는 모임입니다. 지난 1월 8일, 사랑방에 모인 12명의 대학생들은 'AIDS와 인권'을 주제로 논의를 전개하였습니다. 다음 월레포럼은 '노인과 인권'을 주제로 2월 12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여름 어린이·청소년 캠프에 참여했던 도우미 교사들이 다시 모여, 인권교재 개발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인권교재 개발팀에서는 첫 번째 사업으로 청소년들에게 '유엔 어린이·청소년 권리조약'을 가르칠 수 있는 인권교재를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인권교육길잡이』에 이어 두 번째 인권교재가 될 이번 교재는 △유엔 어린이·청소년 권리조약과 세계의 청소년 △인권교육의 방법론 △인권교육활동 등의 내용으로 꾸며질 예정입니다.

인권기구공대위, 2월10일 평가토론회 예정

지난해 12월 20일, 국민회의가 인권법 제정을 연기하기로 함으로써 국가인권기구 설치 가능성이 매우 희박해졌으나, 김대중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인권법 제정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향을 밝힘에 따라 상황이 다시 역전되었습니다. 16대 국회에서 국가인권기구 설치가 다시 추진될 수 있을지 지금으로서는 판단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는 오는 2월 10일 내부 평가토론회를 개최하여 지난 1년 반 동안의 활동 성과와 한계를 되짚어보고 전열을 가다듬는 계기로 삼기로 했습니다. 또한 '총선시민연대'측에 출마 부적격자로 국민회의 박상천, 장영철 의원을 공식 추천 하였습니다. 박상천 의원은 법무부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검찰세력의 이해를 대변하면서 특수법인 인권위원회 설치를 고집함으로써 인권위 설치 문제를 오늘의 상황에 이르게 한 장본인입니다. 장영철 의원은 지난해 3월 22일, 국민회의 정책위의장으로 새로 임명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법무부의 '특수법인안'을 당정협의안으로 통과시킨 바 있으며, 공대위가 이에 항의하자 '자신은 인권법에 대해 아는 바 없다'라는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한 바 있습니다.

공대위는 향후 총선 후보자들에게 국가인권기구 설치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는 설문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 사무국은 22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우이동으로 신년계획 수립을 위한 MT를 떠납니다. 이번 MT에서는 올해 사업 방향과 인권운동연합기구 건설, 조직편제 등에 대한 논의를 가지며, 각 사업단위별 사업계획을 검토합니다. 이 MT의 논의에 따라 올해 사업계획이 나오게 되며, 이에 따라 올해의 사업이 전개될 것입니다. 올해의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다음 호에 소개하겠습니다. 이번 MT에 앞서 사무국은 지난해 12월 30일 1박2일로 단합모임을 서오릉으로 다녀왔습니다.

■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간 휴직을 했던 최은아씨가 1월부터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최은아씨는 휴직 중에 1달 보름간 인도를

다녀왔습니다. 인도에서의 경험을 일단을 이번 사랑사랑에서 귀국보고 형식으로 게재 하였습니다. 최은아씨는 사회권위원회에 결합하고, 이후 다시 제네바 유엔인권위원회에 다녀오게 됩니다.

■ 박래군 사무국장은 mbc 라디오 여성 시대에 지난 1월 12일 출연해서 인권운동사랑방의 활동에 대해 20여분간 소개했습니다. 교통방송의 '임국희의 교통시대'에도 1월 24일 오전 10시부터 김정아씨가 출연하여 인권운동사랑방의 활동을 소개합니다.

■ 사랑방의 상임활동가로 95년부터 활동해왔던 엄주현씨가 출산을 이유로 지난해 12월 사직했습니다. 엄주현씨는 오는 2월경 출산하게 되며, 당분간 육아 문제에만 집중할 계획입니다. 또, 유점렬씨도 1월부터 상임활동가를 사직하고 자원활동가로 결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무실의 유일한 부부 활동가였던 이들이 거의 동시에 상임활동가 직을 사직하게 되었습니다.

■ 상임활동가로 근무하다가 지난해 출산 문제로 장기 휴직중인 김수경씨 딸 둘이 1월 23일이었습니다. 김수경씨는 당분간 생활비를 버는 일에 집중할 생각입니다.

■ 자유권위원회 감옥모임과 국가보안법 반대 국민연대에서 자원활동을 했던 현정덕씨가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인권실천시민연대 상근간사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현씨는 오는 29일 사랑방의 상임활동가들을 접들이에 초대했습니다.

■ 자원활동가 모임인 인사동(대표 김양미)은 지난해의 부진을 씻고, 새해의 각오를 다지기 위한 신년 MT를 우이동으로 다녀왔습니다. 또한, 대학생인권모임 '젊은 이웃'이 사랑방에 결합하여 젊은 사람들을 규합하겠다는 포부를 밝혀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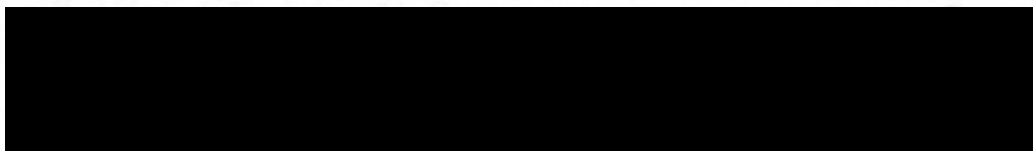
99년 12월 재정 보고

(99년 12월 16일 - 2000년 1월 15일)

이월금: -114,619원

수입		지출	
총사업수익	4,391,550원	사업비	446,990원
-하루소식	3,490,950원	-하루소식	139,980원
구독료(199명)	3,305,920	발송비	138,980
인권시평 배급	96,700	복사비	, 0
합본호 판매	88,330	기타	1,000
-정보자료실	92,250원	-정보자료실(제본용구)	25,000원
간행물 판매	59,000	-자유권위원회	4,150원
영상자료 대여	5,000	-후원회원(사람사랑발송)	27,860원
자료복사비	14,300	-행사비	250,000원
자료판매비	13,950	송년의밤	160,000
-인권교육실(강연료)	150,000원	사무국 MT	90,000
-사회권위원회	58,350원	활동비	4,320,000원
<인간답게 살 권리> 판매금		사무실유지비	1,038,500원
-사무국장(강연료)	100,000원	통신비용	1,330,650원
-재정사업(총무)	500,000원	-일반전화, 팩스	1,187,650
후원금	4,960,840원	-피시통신, 인터넷	143,000
-정기 후원회비(43명)	2,628,430	난방비용(가스, 기름)	118,000원
-특별후원금	2,332,410	사무비품 구입비	199,800원
기타	7,080원	식비	171,850원
-은행이자	2,080	생활용품	13,460원
-기타	5,000	부채상환	1,343,000원
		기타	256,390원
		-사무국장 핸드폰비용	54,390
		-정기간행물(일,주,월간지)구독료	202,000
총수입:	9,359,470원	총지출:	9,238,640원
잔액 :			6,211원
현 부채액 :			17,743,400원

후원회비 납부계좌



*** 기타 문의는 총무 이창조(02-741-5363)

<99년 12월 재정 세부사항>

-연말이었기 때문인지 구독료와 회비 미납분을 납부해주신 분들이 많아 구독료(30여만원 증가)와 회비(60여만원 증가) 수입이 재정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천주교 청주정의평화위원회와 신경구(전남대) 교수 님, 정인숙(들빛회) 님, 김영필(직장인) 님, 서울대교구가톨릭학생회에서 후원금을 보내주셨습니다. 또 미국 유학(2월)을 앞둔 차지훈 변호사께서 후원금을 보내주셨고, 멀리 호주의 시드니민족교육문화원에서도 후원금을 보내주셨습니다.

-총무는 11월부터 12월까지 한달간 수험생 논술점삭지도 아르바이트를 했고, 그것이 이번 달 재정사업 수익으로 포함됐습니다.

-식비가 대폭 줄어드는 등(사무국 성원들이 식사량을 많이 줄이고 반찬 가지수도 많이 줄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지출액이 줄어들었습니다. 권태평 님이 김장을 해주셔서 김치를 넉넉히 먹고 있습니다.

-12월의 흑자분 가운데 130여만원으로 부채를 상환했지만, 여전히 1700여만원의 부채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부채청산을 위해 나섰습니다>

설맞이 선물세트 한우갈비, 등심, 황실명차 염가제공

사랑방이 부채청산을 위해 수익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주문은 1월 28일까지입니다.

<한우세트>

1. LA갈비세트 3kg (10만원)
2. 한우등심(불고기용) 및 양지(국거리용) 세트 3kg - 8만원
3. 한우등심(불고기용) 및 사골(국거리용) 6kg - 15만원

<황실명차세트>

1. 50포 세트 : 2만6천원
2. 100포 세트 : 5만원

<12월 후원회비 납부 감사합니다>(무순)

